

역할모델 노출이 청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진 주 형** · 박 병 진***

국문요약(Korean Abstract):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기존 기업에서의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청년 창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청년들이 창업이라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의 일반 청년 6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족과 지인의 역할모델 노출 경험이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의 심리적 변수들을 매개로 청년들의 창업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역할모델과 지인 역할모델은 계획된 행동이론의 심리적 변수들(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계획된 행동이론의 심리적 변수들과 창업의도 간에도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의 변수들이 역할모델 노출 경험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계획된 행동이론의 심리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은 가족 역할모델 노출 경험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역할모델을 가족 역할모델과 지인 역할모델로 나누어 구조방정식을 통해 창업의도와 인과관계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가족 역할모델이 계획된 행동이론의 심리 변수를 통해서만 창업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주제어] 청년 창업, 계획된 행동이론, 역할모델 노출, 창업의도, 기업가정신

*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A8014121).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석사과정(jrjuhyeong@hanyang.ac.kr, 제1저자)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bjpark11@hanyang.ac.kr, 교신저자)

The Impact of Role Model Exposur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Self-efficacy*

Ju Hyeong Jin** · Byung-Jin Par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what factors can promote the Korea's young people to be self-employed through business start-up. On basis of a literature review, we designed an empirical research model to examine the mechanism how the role model exposure influenc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study categorized the role model exposure into two variables: family role model exposure and peer role model exposure. Further, Ajzen's (1991)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model was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factors that fill the gap between role model exposur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o test the hypotheses, a survey was conducted to target 20~39 ages people in Korea and the empirical analysis was finally done with the surveys of effective 605 Korean young people. We employed SPSS 21.0 and AMOS 21.0 for validity, reliabil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family role model exposure and peer role model exposure gave a positive effect to psychological variables (entrepreneuri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f Ajzen's TPB model. And those psychological variables gave a positive effect to entrepreneurial intention. Meanwhile, while the direct impact of peer role model exposure had a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ial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4S1A5A8014121).

** Master Graduate, Hanyang University (jrjuhyeong@hanyang.ac.kr,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bjpark11@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intent, the direct impact of family role model exposure on entrepreneurial intent was not significant. That is, the TPB's psychological variables played a full mediation role between family role model exposur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esults implicates that psychological factors as well as environmental factors have to be considered to develop standards and systems to cultivate talented potential entrepreneurs.

This study advanced ou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s linking role model exposur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psychological factors of Ajzen's TPB model. We discuss th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nd provid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Youth Entrepreneurship, Theory of Planned Behavior, Role Model Expo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ship

I. 서론

기술발전으로 인한 자동화 추세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기존 기업에서의 일자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화(2012)는 창업을 통한 자기 고용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경제성장을 둔화가 고착화되는 추세 속에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자기 고용 확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창업 중에서도 청년창업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회 전반적인 실업 증가 속에서도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더욱 높아져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청년 실업률은 전체 국민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은 8.7% 수준이고, 고용률 역시 OECD 국가 중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통계청, 2014).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의 빈곤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회, 경제 등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하게 된다(박찬주, 2010; Curtain, 2000). 문제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매우 낮은 상태가 향후에도 상당기간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반면,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것은 청년 창업의 긍정적인 측면 때문이다. 즉, 20대 미혼이며 개인적인 자산과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비즈니스 시작을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다(Bygrave, 1997). 이러한 청년창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청년창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크다.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창업분야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개념으

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창업가로서 활동하기로 결정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다. Douglas and Shepherd(2002)는 경제학 관점에서 개인의 실리 최대화를 위한 경력 선택으로 이를 규명하였다. 그들은 기업가적 태도와 능력을 구분하고, 이 능력과 태도에 대한 개인의 수입 잠재성을 연결하였다. 또한 심리학의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Shepherd and Krueger(2002)는 창업가적 능력과 관련하여 개인뿐 아니라 팀의 인지된 실현 가능성(Feasibility)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으며, 창업가적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 높을수록 인지된 욕구(Desirability)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업가적 경험이 많을수록 창업가적 자기 효능감이 높으며, 팀의 인지된 욕구(Desirability)가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짐을 제시하였다.

심리학의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창업의도에 관한 모델은 Shapero(1975)에 의해 정립되었는데, 창업의도가 개인의 욕구, 실현 가능성, 그리고 행동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교되는 모델로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자기 효능감)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Krueger, Reilly, and Carsrud(2000)은 두 모델 모두 창업의도 모델로서 개인적, 배경적 변수보다 창업 행동을 더 잘 예측하며, 두 모델 모두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모델을 기반으로 많은 나라에서 창업 의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는 많은 나라에서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의도의 제고가 중요한 핵심 사안이 되고 있

기 때문이다. 즉, 창업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가 대상의 연구가 중요한 것이다(정대용·한관섭, 2012).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창업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창업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둔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정책으로 인해 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상당부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년층의 창업성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직도 많은 청년층이 창업보다는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사회의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대부분의 청년이나 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하길 주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중국, 몽골,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창업성향에 대한 연구(박철·강유리, 2010)에서 한국의 창업성향이 가장 낮다는 데서도 심각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대졸 청년층의 대규모 실업 사태를 완화하고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인재육성’ 측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창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나 창업에 대한 확고한 의도가 있는 청년을 선별, 발굴해야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창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취직을 할 것인가”의 선택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창업의 전 과정에서 사람들은 인지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창업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차이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며, 기회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기회에 직면해도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Gibson(2003)은 역할모델이 특정 진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즉, 역할모델은 개인에게 사회적 비교모델을 제공하며, 개인은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역할모델과 비교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적 환경요인 중 역할모델 노출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선진 학문의 추세는 기회를 발견하는 전통적 환경 중시의 관점에서 기회를 창출하려는 현대적 자기 통제 및 제어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이전의 금융, 법률 등 인프라 혁신 중심에서 점차 탈피하여 자유의지, 즉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해법을 발견할 수 있는 정신 역량, 또는 비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공한 창업가들은 기업가적 행동(동기와 능력, 지성 및 기술을 포함한 인지적 요소의 결과)을 통해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였고, 나아가 고성장의 성과까지 창출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지심리를 출발점으로 청년층이 ‘직업으로서의 창업’을 선택하고 경력 개발 관점에서 창업의도 및 창업역량 검증과정을 통해 창업가 인생 여정에서 주도적으로 성공하게끔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정대용, 2012).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청년 개개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창업인재의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본적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이 창업의도를 갖는 데 있어 개인적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역할모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역할모델과 창업의도의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

을 채우는 심리학적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자 개인의 환경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관점에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청년 창업

창업과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청년창업 및 청년창업가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외에서도 청년 창업은 사회적 문제(실업문제 등)와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중요한 이슈이다(Curtain, 2000). 청년들이 운영하는 기업은 가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제공한다(OECD, 2001). 즉, 청년들은 창업을 통해 경험적인 학습을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찾게 되고, 이는 시장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오며, 기술 이전, 혁신 등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Chigunta, 2002; OECD, 2001; White and Kenyon, 2000).

개인적 차원에서 청년 창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해외 연구와는 달리, 국내 연구는 청년 창업 정책과 창업 생태계, 창업 장애 요인, 창업 기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박동(2010)은 기술창업 영역에서 청년창업 정책 분석을 하고 창업 교육, 학생창업보육센터 설립을 통한 창업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박재환·안승권·윤인철(2011)은 창업을 돕는 관리기관과 데이터

베이스, 청년창업 동향에 대한 관리지표의 확충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 청년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청년에게 있어 창업이 직업과 진로에 관한 개인적인 의사결정임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청년 창업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2.2 창업의도 결정요인

창업 의도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개인의 몰입이 포함되며(Krueger, 1993), 조직 설립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와 전반적인 창업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 개념으로 볼 수 있다(Boyd and Vozikis, 1994; Krueger, 1993). 또한, 창업가적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창업 의도는 필요한 선행 요소이다(성창수·김진수, 2011; Fayolle, Gailly, and Lassas-Clerc, 2006).

창업에 있어 창업의도의 중요성이 큼에 따라 창업 의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연구의 주요 주제이다(성창수·김진수, 2011; 윤방섭, 2004; 이지우, 2000; 이현숙·백민정, 2012; Ajzen, 1991; Autio, Keeley, Klofsten, Parker, and Hay, 2001). 창업의도 결정요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성창수·김진수, 2011; Naffziger, Hornsby, and Kuratko, 1994). 또한, 환경적 요인은 거시적 창업 환경과 창업가의 미시적(개인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거시적 창업 환경요인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환경요인, 경제적 환경요인, 사회문화적 환경요인 등을 축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양현봉·이상신(2007)은 규제개혁

(법인 설립 제도 등)을 통하여 창업이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박동·박철우·박상철·봉선학(2004)은 산학연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한편, 사회적 환경요인인 사회문화적 요인(사회적 인식 등)이 개인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었다. 윤방섭(2004)과 정연수·조성익(2013)의 연구에서 사회적 환경요인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김혜선·박배진(2009)과 유연호·양동우(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시적 창업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는 창업 촉진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나, 개인적 차원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개인적 환경요인으로는 성별, 창업가 부모, 창업 교육, 경험, 사회적 네트워크 등이 연구되어 왔다. 정연우·반성식(2008)은 청소년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정대용·박경임(2010)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아효능감이 창업활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특성요인은 성격 특성, 신념(Belief)과 태도(Attitude),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PB) 등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개인적 특성 관점에서 창업의도를 규명하는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 위험 감수성, 통제의 위치, 성취 욕구, 자율성 등이 선행 변수로 사용되었다(김영문·전지은, 2009; 이지우, 2000; 정연우·반성식, 2008). 윤방섭(2004)은 창업의도의 결정요인으로서 경력지향성, 자기 유능성, 개인적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현숙·백민정(2012)은 청소년의 개인특

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이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사이에 조절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2.3 개인적 환경요인으로서의 역할 모델 노출 경험

창업인재 육성이나 개인의 심리적인 속성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거시적 창업환경보다 개인적 요인이 창업의도 결정요인으로 더 중요하다. 창업의도는 “창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취직을 할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아 효능감, 창업교육, 경험학습 등의 인지 사회 심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경력개발 입장에 근거한 지원정책의 효과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정대용, 2012).

개인적 환경요인 중 본 연구는 역할모델 노출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역할모델과 진로 선택의 관계는 여러 이론과 심리적 매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역할모델이 특정 진로에 영향을 준다는 Gibson(2003)의 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역할모델은 개인에게 사회적 비교모델을 제공하며, 개인은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역할모델과 비교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 동기, 행동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은 역할모델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성취할 이미지를 그리게 된다(Barnir, Watson, and Hutchins, 2011; Blanton, 2001; Buunk, Peiró, and Griffioen, 2007). 또한 역할모델은 사회적 지원과 진로 관련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다. Greenberger and Sexton(1988)은 창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적 지원을 설명하였으며, Scherer, Adams, Carley, and Wiebe (1989)은 역할모델의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자원이 확보되는지 등의 성공 요인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2.4 계획된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TPB)은 행동의도에 관한 사회심리적 연구에서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델로 정황적(Context) 관점에서 개인과 개인적 환경에 대한 신념과 태도 차원으로 행동의도(Intention)를 설명하고 있다. 창업가적 특성과 창업 프로세스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소에 의해 형성되며(Bygrave, 1997),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Greenberger and Sexton, 1988), 개인의 환경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는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PB)이 각광받는 것이다.

Ajzen(1991)은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확장시켜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고 인지과정이며(이현숙·백민정, 2012; Ajzen, 1989), 과거 행동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영향은 계획된 행동 이론(TPB)을 따른다고 주장하였다.

목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의 3가지 핵심 요인에 영향을 받는 행동의도는 의사결정자의 초점을 목표 행동에 집중시키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Ajzen,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TPB) 모델을 사용하여, 과거의 경험이 ‘신념과 태도’(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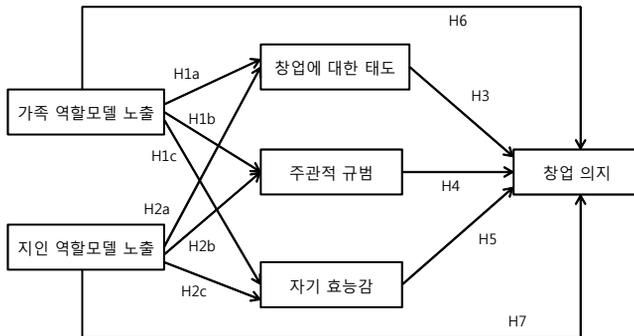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가족과 지인 역할모델 노출 경험, 계획된 행동이론의 심리적 요인들의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3.2 가설 설정

3.2.1 가족 역할모델 노출 경험과 심리적 요인

최근 역할모델 노출 경험에 대한 연구는



<그림 1> 연구 모형

특정 역할모델의 효과와 경력 목적 추구의 일반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특히, 역할모델은 직업적 선택과 연결되어 연구되었다(Buunk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역할모델 노출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의 심리적 변수(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Scherer et al.(1989)은 개인이 역할모델의 관찰을 통해서, 개인의 기대와 자기 효능감의 인식을 형성하고, 이는 창업가가 되겠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rueger(1993)는 이전 기업가적 경험과 창업가적 경력 의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기업가적 경험의 폭은 실현가능성에, 긍정적인 경험은 경력 선택 욕구의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지각된 실현가능성은 자기 효능감과 유사한 변수이며,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지각된 경력선택 욕구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역할모델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노출되는 것을 통하여 대리학습 기회를 제공하며(Henry, Hill, and Leitch, 2005), 위협과 도전을 다룰 수 있다는 느낌과 자신감을 증진시킨다(Zhao, Seibert, and Hills, 2005).

본 연구는 역할모델 중에서 가족과 지인 역할모델에 초점을 두었다. 역할모델의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에서 가까운 가족과 부모가 창업가적 활동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약한 유대관계인 유명인에 비해 강한 유대관계인 부모나 가족, 선생님 등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Gianetti and Simonov, 2009; Kennedy, Drennan, Renfrow, and Watson, 2003; Sequeira, Mueller,

and Mcgee, 2007; Van Auken, Fry, and Stephens, 2006).

개인의 경력에 대한 신념은 부모의 행동과 기대의 인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 경험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받는다(Dick and Rallis, 1991). 또한, 가족 배경이나 어릴 적 경험에 대한 노출은 기업가적 태도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Morris and Lewis, 1995). Scherer et al.(1989)은 35~65%의 창업가에게 창업가 부모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창업 연구에서, 가족기업 경험은 창업의도에 대한 과거 행동효과를 설명하는 매커니즘으로 작용하며, 이는 세대간 영향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Carr and Sequeira, 2007; Mead and Mind, 1934).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a: 가족 역할모델 노출 경험은 창업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b: 가족 역할모델 노출 경험은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c: 가족 역할모델 노출 경험은 자기 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지인 역할모델 노출 경험과 심리적 요인

개인의 발달 측면에서 사회화는 일련의 반영과 행동이 계속되는 과정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하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지와 관련되어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개인의 경력에 대한 신념은 부모

뿐만 아니라, 친구 및 교사 등 사회화 주관자(Socializer)의 행동과 기대의 인식 및 그들의 과거 경험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받는다(Dick and Rallis, 1991). 또한, 지인의 사업에 대한 노출은 기업가적 태도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Morris and Lewis, 1995).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a: 지인 역할모델 노출 경험은 창업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b: 지인 역할모델 노출 경험은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c: 지인 역할모델 노출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심리적 요인과 창업의도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창업의도는 개인이 창업가적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동기 유발적 요인들 또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들인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을 필요로 한다(Ajzen, 1991).

태도는 대상, 사람, 기관, 사건에 대해서 호의적/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이다(Ajzen, 2001).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도가 더 강하다(Armitage and Conner, 2001). 따라서, 창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창업의도도 강할 것이다.

주관적 규범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 수용되고, 지지된다는 것을 예비 창업가가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Ajzen, 1991).

자기 효능감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행동을 실제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능력에 있어서 자신감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지된 행동통제력을 측정할 수 있다(Ajzen, 1991).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자원 가용성의 인식이지만, 이 개념은 개인의 임무 완성에서의 인지된 난이도이다. 개인은 완성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려는 성향을 띤다(Bandura, 1997). Bandura(1986)는 자기 효능감을 특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기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한다. 자기 효능감은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활용하려는 강한 의도를 보이며, 창업 역시 기회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Krueger and Brazeal, 1994). 결국, 자기 효능감이 강할수록 행동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며 결과적으로 강한 행동의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기업가적 일의 성취와 관련한 자기 확신의 정도가 높을수록, 의도 통제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을 창업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자기 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역할모델 노출과 창업의도

역할모델은 특정 경력과 경력 목표 추구의 동기부여에 특별한 영향을 끼친다(Gibson,

2003). Barnir et al.(2011)은 역할모델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역할모델 노출 경험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은 가족이나 지인의 역할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역할모델로서 가족과 지인이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지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Shapero and Sokol(1982)의 연구에서는 가까운 가족과 부모가 기업가적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가 자녀들의 역할모델로서 작용할 때, 그리고 부모의 창업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이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자녀들이 인식할 때, 자녀들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이현숙·백민정, 2012; Dunn and Holtz-Eakin, 2000; Fairlie and Robb, 2007; Parker, 2009). 또한 동료나 지인, 이웃도 창업가가 되려는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Gianetti and Simonov, 2009).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가족 역할모델 노출 경험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지인 역할모델 노출 경험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 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역할모델 노출 경험을 가족과 지인으로 구분하여 가족 역할모델 노출 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Carr

and Sequeira(2007)가 사용한 질문 3개와 지인 역할 모델을 묻는 질문으로 Barnir et al.(2011)의 문항 3개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족 역할모델 노출 경험에 대한 질문은 “부모님께서 사업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모님 외에 가족이나 친척 구성원 중에서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가족 구성원의 기업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이며, 지인 역할모델의 노출 경험의 경우에는 “(가족, 친척 제외) 친한 친구(또는 동료, 선후배) 중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가족, 친척, 친한 친구 제외) 관계를 갖는 지인 중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창업기업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이다. 응답자들은 역할모델 노출 경험의 각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였고, 모두 아니오(No)일 경우에는 0으로, 예(Yes)가 있을 경우에는 예(Yes)의 개수를 합산하였다.

매개변수인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Ajzen(1971, 2001), Ajzen and Fishbein(1980), Carr and Sequeira(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창업에 대한 태도의 질문은 5개 항목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것은 나에게 긍정적이다, 유용하다, 가치가 있다, 매력적이다, 만족을 가져온다”이며, 주관적 규범의 주요 질문은 8개 항목으로 “부모님, 배우자/애인, 형제/자매, 친척, 가까운 이웃, 동료, 지인, 가까운 친구가 내가 창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로 설정하였다. 또 다른 매개변수인 자기 효능감은 이지우(2000), Jones(1986)의 문항을 바탕으로 윤방섭(2004)이 사용한 3개 문항과 Bandura(1977)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이지우(2000)가 사용한 것 중 1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자기 효능감을 묻는 질문은 “나는 내 업체를 소유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경험, 기술을 갖추고 있다, 나는 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있다, 내가 내 기업을 운영하는 능력은 다른 동료들과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 된다고 자신하고 있다, 나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따르는 어떠한 어려운 일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이다.

중속변수인 창업의도는 Ajzen(1991, 2001), Kolvereid(1996), Liñán and Chen(2009)이 사용한 설문 중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질문은 “나는 창업기업가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창업할 생각을 매우 진지하게 가지고 있다, 나는 10년 이내에 창업을 할 것이다”로 하였다.

상기의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 창업의도는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4.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선정은 연구 목적에 맞게 청년(20~39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양한 표본을 얻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프라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모두 실시하였다. 2014년 4~5월 약 3주 간에 걸쳐 진행하였고,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는 설문 조사 기관을 통해 진행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554부, 오프라인 설문조사로 202부, 총 756부가 수집되었으며,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 응답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이미 창업경험이 있거나 창업행동을

한 사람을 제외한 총 60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일련의 설문문항에 대하여 뚜렷하게 동일한 응답패턴이 있는 경우와 측정변수의 측정항목 중 10% 이상이 결측치일 경우에 불성실 응답자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해 SPSS 21.0으로 인구통계적 변수와 관련된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잠재변수들 간의 신뢰성과 타당성 및 인과관계는 AMOS 21.0을 통해 분석하였다.

V. 실증 분석

5.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는 청년층 일자리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청년들이 창업을 선택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20~39세의 청년(통계청 분류 기준)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54.2%(328명), 여성 45.8%(277명)이며, 연령대는 20~24세 24.8%(150명), 25~29세 21.7%(131명), 30~34세 27.6%(167명), 35~39세 26.0%(157명)이다. 학력은 고졸이하 5.8%(35명), 대학재학 34.7%(210명), 대졸 46.6%(282명), 석사재학 6.9%(42명), 석사졸업 5.1%(31명), 박사재학 및 졸업 0.8%(5명)로 대부분이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하였다. 전공은 공학/IT 30.6%(185명), 상경계열 29.6%(179명), 인문사회 24.0%(145명), 자연과학 7.4%(45명), 예체능 5.6%(34명) 순이다. 부모(경제를 주로 담당하는 분)의 직업은 회사원 42.1%(255명), 자영업자 34.4%(208명), 전문직 10.2%(62명), 특수직 3.5%(21명), 기타 9.8%(59명)순이다.

응답자 본인의 직업은 회사원 40.3%(244명), 학생 37.5%(227명), 전문직 7.9%(48명), 주부 6.8%(41명), 자영업 2.6%(16명), 기타 4.8%(29명)이다. 월 가구소득의 경우 300만 원~450만 원 미만 26.4%(158명), 450만 원~600만 원 미만 21.2%(127명), 150만 원~300만 원 미만 18.9%(113명), 600만 원~750만 원 미만 11.9%(71명) 순으로 나타났다.

5.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실증분석을 위한 가설검증에 앞서 측정 항목들의 구성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요인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잠재변수별 신뢰도 분석에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h's α 는 모두 0.9 이상(창업에 대한 태도 0.948, 주관적 규범 0.932, 자기 효능감 0.911, 창업 의도 0.916)의 값을 나타내어 0.7 이상의 경험적 기준치를 넘어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 주관적 규범에서 초기 8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이 제거되어 6개 항목이 채택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가 일반적인 적합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적합지수를 살펴보면, $\chi^2 = 743.386$, $df = 157$, $p = 0.000$, $GFI = 0.89$, $AGFI = 0.85$,

<표 1> 측정모형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변수	측정변수	표준 적재치	표준오차	C.R	개념 신뢰도	AVE	Cronbah's α
창업에 대한 태도	태도1	0.916	-	-	0.940	0.757	0.948
	태도2	0.865	0.29	32.604			
	태도3	0.913	0.37	37.537			
	태도4	0.879	0.30	33.969			
	태도5	0.858	0.30	31.942			
주관적 규범	규범1	0.697	-	-	0.898	0.597	0.932
	규범2	0.738	0.55	17.389			
	규범3	0.810	0.53	19.032			
	규범4	0.912	0.56	21.282			
	규범5	0.934	0.57	21.740			
	규범6	0.895	0.62	20.905			
자기 효능감	효능1	0.808	-	-	0.900	0.693	0.911
	효능2	0.859	0.43	24.517			
	효능3	0.871	0.42	24.985			
	효능4	0.861	0.43	24.624			
창업 의도	창업의도1	0.826	-	-	0.890	0.729	0.916
	창업의도2	0.957	0.43	30.854			
	창업의도3	0.895	0.46	28.082			

$\chi^2 = 743.386$, $df = 157$, $p = 0.000$, $GFI = 0.89$, $AGFI = 0.85$, $CFI = 0.95$, $RMSEA = 0.79$, $IFI = 0.95$, $NFI = 0.93$, $TLI = 0.94$

주) 가족 역할모델과 지인 역할모델은 단일항목으로 측정된 변수로 제외하였음.

CFI = 0.95, RMSEA = 0.79, IFI = 0.95, NFI = 0.93, TLI = 0.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방정식의 모형적합성에 명확한 권장기준이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Chi-square(χ^2) 값은 관찰변수의 분포 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몇 개의 적합도 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Ping Jr., 2004; Hair Jr, Black, Babin, and Anderson, 2009). 본 연구의 GFI와 AGFI는 0.9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FI와 AGFI는 상대적으로 큰 모형에 있어 그 활용성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Anderson and Gerbing, 1984), 본 연구는 비교적 큰 모형에 속하기 때문에 GFI와 AGFI 값은 인정되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표본특성에서 자유로운 CFI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Bentler, 1990), 본 연구의 CFI 지표값이 0.95로 나타났으며, IFI, NFI, TLI 등이 모두 0.9 이상임을 고려할 때 모델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강병서, 2002; 노형진, 2003; 송지훈, 2014).

전체 측정모형을 분석한 후, 해당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집중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에 대한

내용으로 내적 일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평균분산추출값(AVE)이 0.5를 상회하여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개념신뢰도 역시 모두 0.7 이상(창업에 대한 태도 0.940, 주관적 규범 0.898, 자기 효능감 0.900, 창업의도 0.890)으로 나타나 각각의 구성개념들의 집중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의 AVE의 값과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제공한 값(R^2)의 차이를 비교하였다(Ping Jr., 2004). <표 2>에서 대각선 요소들은 각각의 개념에 대한 AVE값을 표기하고, 비대각선 요소들은 해당 개념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Ping Jr.(2004)에 따르면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보다 내적으로 더 높은 상관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나타난 구성개념간의 상관계수에 대한 제곱 값들이 해당개념의 AVE값을 넘지 않아 판별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5.3 가설검증 및 결과분석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모형 분석을 실시한

<표 2> 구성 개념간 판별타당도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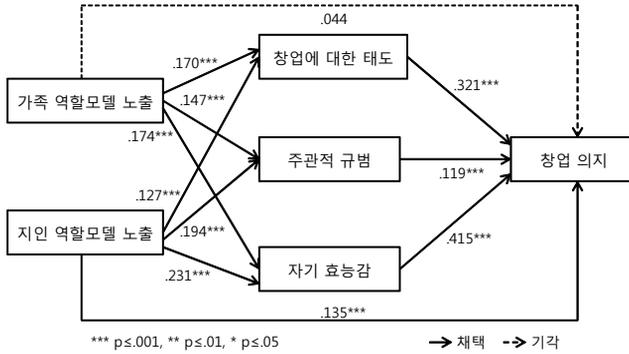
	가족 역할모델	지인 역할모델	창업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	창업 의도
가족 역할모델	1.000*					
지인 역할모델	.391	1.000*				
창업태도	.218	.194	.757*			
주관적 규범	.233	.265	.661	.597*		
자기 효능감	.273	.308	.712	.598	.693*	
창업의도	.302	.363	.753	.631	.746	.729*

주) 해당 개념의 AVE값. 비대각선 요소들은 구성요소간 상관관계 계수임. 가족 역할모델과 지인 역할모델은 단일항목으로 측정되어 AVE값을 1로 고정함.

결과, 연구 모형의 자료에 대한 적합도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는 카이스퀘어 = 353.749, df = 143, p = .000, GFI = 0.946, AGFI = 0.920, NFI = 0.968, IFI = 0.981,

CFI = 0.981, TLI = 0.974, RMSEA = 0.049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그림 2>, <표 3>, <표 4>와 같다. <그림 2>와



<그림 2> 가설 1~가설 7의 검증 결과

<표 3> 가설 1~가설 7의 검증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p값	결과
H1	H1a 가족 역할모델 → 창업에 대한 태도	0.170	0.61	3.831	***	채택
	H1b 가족 역할모델 → 주관적 규범	0.147	0.43	3.356	***	채택
	H1c 가족 역할모델 → 자기 효능감	0.174	0.53	3.884	***	채택
H2	H2a 지인 역할모델 → 창업에 대한 태도	0.127	0.58	2.864	***	채택
	H2b 지인 역할모델 → 주관적 규범	0.194	0.41	4.400	***	채택
	H2c 지인 역할모델 → 자기 효능감	0.231	0.51	5.122	***	채택
H3	창업에 대한 태도 → 창업의도	0.321	0.47	8.426	***	채택
H4	주관적 규범 → 창업의도	0.119	0.52	3.203	***	채택
H5	자기 효능감 → 창업의도	0.415	0.57	8.426	***	채택
H6	가족 역할모델 → 창업의도	0.044	0.38	1.603	0.109	기각
H7	지인 역할모델 → 창업의도	0.135	0.37	4.756	***	채택

Note) *** p < 0.01, ** p < 0.05, * p < 0.1.

〈표 4〉 심리적 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직접효과 (계수값)	간접 효과		총효과 (계수값)
		계수값	p값	
가족 역할모델→ 창업의도	0.044	-	-	0.188 ^{***}
가족 역할모델→창업 태도/주관적 규범/자기 효능감→창업의도	-	0.144 ^{***}	0.002	
지인 역할모델→ 창업의도	0.135 ^{***}	-	-	0.295 ^{***}
지인 역할모델→창업 태도/주관적 규범/자기 효능감→창업의도	-	0.16 ^{***}	0.005	

Note) *** P < 0.01, ** P < 0.05, * P < 0.1

<표 3>은 가설 1~가설 7의 검정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모델 노출 경험과 심리적 요인(계획된 행동이론 변수들)간의 관계에서 가족 역할모델 노출 경험과 지인 역할모델 노출 경험은 계획된 행동이론의 심리적 요인들(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a~가설 1c, 가설 2a~가설 2c 모두 채택되었다.

둘째, 심리적 요인(계획된 행동이론 변수들)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 모두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가설 5 역시 모두 채택되었다.

셋째, 역할모델 노출 경험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지인 역할모델 노출 경험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가설 7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가족 역할모델 노출경험의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기각되었다.

한편,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역할모델이 심리적 요인(계획된 행동

이론의 변수들)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심리적 요인들은 가족 역할모델 노출과 창업 의도 사이에서는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반면, 지인 역할모델 노출과 창업의도 사이에서는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인 역할모델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성을 나타낸 반면, 가족 역할모델은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3>과 <그림 2>의 경로를 통해 역할모델과 심리적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창업에 대한 태도에서는 가족 역할모델(표준화 계수: 0.170)이 지인 역할모델(표준화 계수: 0.127)보다 높은 반면, 주관적 규범과 자기 효능감 측면에서는 가족 역할모델(표준화 계수: 각각 0.147, 0.174)이 지인 역할모델(표준화 계수: 각각 0.194, 0.23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청년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역할모델 노출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역할모델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연구는 미흡하다. 윤방섭(2004)은 네트워크 환경이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여 역할 모델의 중요성을 시사하였고, 김영문·전지은(2009)도 사회적 지원세력과 네트워크 환경을 통칭하여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역할 모델의 체계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해외 연구에서 역할모델의 창업 의도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통한 인과관계분석이 아니라, ANOVA를 이용한 각 역할모델의 평균 비교로 이루어졌다(Davidsson, 1995; Kennedy et al., 2003; Van Auken et al., 2006). 또한, 해외에서 역할모델과 창업의도의 인과관계 분석을 한 연구는 역할 모델의 존재(네트워크 환경)를 묻는 방식으로 역할모델을 측정하여 창업의도와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Barnir et al., 2011; Carr and Sequeira, 2007).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역할 모델을 ‘가족’ 역할모델과 ‘지인’ 역할모델로 구분하였으며, 계획된 행동이론의 심리적 요인들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연구 결과, 지인 역할모델 노출 경험은 창업의도에 직접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계획된 행동이론의 심리적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분 매개역할). 그러나 가족 역할모델 노출 경험은 창업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개인의 심리적 요인(계획된 행동이론의 변수)을

통해서만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완전 매개 역할).

한편, 계획된 행동이론과 관련된 심리적 변수들(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창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Ajzen(1991, 2001)의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것을 연구한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역할모델에 중점을 둔 것이다. 기존 국내 연구에서 부모와 지인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역할모델 관점에서 가족과 지인 역할모델 노출 경험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가족 역할모델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다수 국내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계획된 행동이론의 심리적 변수들이 역할모델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역할모델 노출경험과 창업의도 사이의 간극을 메웠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을 통해 창업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과 심리적 특성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증적인 기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창업의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창업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는 위험과 불안요소

를 해소하고 창업에 대한 자부심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가족 역할모델은 지인 역할모델과 달리, 창업의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또한, 매개변수인 심리적 요인 중 주관적 규범 측면에서 가족 역할모델은 지인 역할모델에 비해 긍정적 영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식의 창업을 장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식이 직업으로서 창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가족의 부정적 인식과 관련되며 자식의 창업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협과 불안을 주기 때문(한정화, 2012)일 것이다. 또한, 심리적 요인 중 자기 효능감 측면에서도 가족 역할모델은 지인 역할모델에 비해 긍정적 영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이 가족 내에서 공유되고 전수되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창업이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예: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지원정책 확대)과 함께 창업가정인 자부심을 가지고 자식에게 창업관련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전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예: 초·중등 창업교육 및 가족기업 대상의 창업교육)과 함께 가족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예: 중소 가족기업에 대한 승계 및 육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창업에 대한 불안요소가 제거되어 부모나 가족이 자식의 창업을 장려할 수 있고, 가업승계를 통해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으므로 청년들의 주관적 규범과 자기 효능감이 제고되고 이는 창업의도 고취로 이어져 결국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년 창업의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가족보다는 지인 역할모델에 대한 노출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지인 역할모델 노출 경험은 창업의도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지인을 통해서 창업 사례들을 실제적이고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들 특히 청년 기업가들의 멘토링 등을 통한 지인 역할모델에 대한 노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새로운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선별기준 중에서 경험과 심리요인이 중요하다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의 역할모델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어린 나이부터 오랫동안 많이 제공받았거나 창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등의 신념과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창업에 대한 의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거 경험과 심리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 인재를 발굴해낸다면, 청년 창업가 육성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통한 향후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일회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들이 안고 있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즉,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같은 시점에서 측정하여, 과거 경험, 현재의 신념과 태도, 미래 행동의도 모두를 현재 시점에서 측정한 한계점을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로 연구를 함으로써 창업 과정과 발달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변수의 측정에 한계가 있다. 역할모델 노출 경험을 예/아니오의 형태로 질문하여 측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향

후 연구에서는 역할모델 노출 경험의 양이나 질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좀 더 다양한 방법(심층 인터뷰 등)으로 측정을 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 : 2014년 10월 6일

논문수정일 : 2014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01일

참 고 문 헌

- 강병서(2002), 『인과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무역경영사.
- 김영문 · 전지은(2009), “개인의 내부적 · 외부적 요인이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연구』, 제42권, 제2호, pp. 39-56.
- 김혜선 · 박배진(2009), “창업교육 요구도와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4권, 제4호, pp. 139-165.
- 노형진(2003), 『SPSS/AMOS에 의한 사회조사분석』, 형설출판사.
- 박 동(2010), “청년 지식기술 창업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 동 · 박철우 · 박상철 · 봉선학(2004), “혁신주도형 경제도약을 위한 신산학 협력,” 연구보고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박재환 · 안승권 · 윤인철(2011), “가정환경, 경력지향성 및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4호, pp. 2499-2520.
- 박찬주(2010),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활성화 방안,” 『사회적기업연구』, 제3권, 제2호, pp. 38-55.
- 박 철 · 강유리(2010), “정책연구: 한국, 중국, 몽골,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창업성향에 관한 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2권, 제2호, pp. 225-246.
- 성창수 · 김진수(2011),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3권, 제3호, pp. 109-133.
- 송지준(2014), 『SPSS/AMOS 통계분석 방법』, 개정2판, 21세기사.
- 양현봉 · 이상신(2007), “법인설립제도 개선방안: 한국 · 일본 · 미국 · 캐나다 제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산업 연구원.
- 유연호 · 양동우(2008),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요인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제21권, 제5호, pp. 2347-2368.
- 윤방섭(2004), “창업 의도의 결정요인: 개인 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제17권, 제2호, pp. 89-110.
-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제22권, 제1호, pp. 121-146.
- 이현숙 · 백민정(2012), “청소년의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관적 규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제15권, 제2호, pp. 65-84.
- 정대용(2012),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인지행동 특성,” 아산재단 아산나눔재단 공동주최 심포지엄.
- 정대용 · 박경임(2010),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아효능감이 기업가적 의도를 매개로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제5권, 제4호, pp. 115-139.

- 정대용 · 한관섭(2012), “창업활동이 성장 의도를 매개로 창업결과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제34권, 제1호, pp. 97-119.
- 정연수 · 조성의(2013), “대학생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창업교육에의 시사점,” 『한국창업학회지』, 제8권, 제1호, pp. 57-73.
- 정연우 · 반성식(2008), “청소년 창업교육과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3권, 제1호, pp. 45-67.
-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보도자료.
- 한정화(2012),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활성화,” 아산재단 아산나눔재단 공동주최 심포지엄.
- Anderson, J. C. and D. W. Gerbing(1984), “The Effect of Sampling Error on Convergence, Improper Solutions, and Goodness-of-fit Indices for Maximum Likelihoo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49, No.2, pp. 155-173.
- Ajzen, I.(1971), “Attitudinal vs. Normative Messages: An Investigation of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ersuasive Communications on Behavior,” *Sociometry*, pp. 263-280.
- Ajzen, I.(1989),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Psychology Press.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Vol.50, No.2, pp. 179-211.
- Ajzen, I.(2001), “Nature and Operation of Attitud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2, No.1, pp. 27-58.
- Ajzen, I. and M. Fishbein(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ur*,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 Armitage, C. J. and M. Conner(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 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40, No.4, pp. 471-499.
- Autio, E., R. H. Keeley, M. Klofsten, G. G. C. Parker, and M. Hay(2001),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Students in Scandinavia and in the USA,” *Enterprise and Innovation Management Studies*, Vol.2, No.2, pp. 145-160.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 191.
- Bandura, A.(1986), *The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Self-control*, WH Freeman & Co., Gordonsville, VA.
- Barnir, A., W. E. Watson, and H. M. Hutchins (2011),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Role Models,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and Gend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41, No.2, pp. 270-297.
- Bentler, P. M.(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Vol.107, No.2, p. 238.
- Blanton, H.(2001), “Evaluating the Self in the Context of Another: The Three-Selves Model of Social Comparison Assimilation and Contrast,” *Cognitive Social Psychology: The Princeton Symposium on the*

- Legacy and Future of Social Cognition*, Mahwah, NJ: Erlbaum, pp. 75-87.
- Buunk, A. P., J. M. Peiró, and C. Griffioen (2007), "A Positive Role Model May Stimulate Career-Orient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37, No.7, pp. 1489-1500.
- Boyd, N. G. and G. S. Voziki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8, pp. 63-77.
- Bygrave, W. D.(1997), "The Entrepreneurial Process," *The Portable MBA in Entrepreneurship*, 4th Edition, pp. 1-26.
- Carr, J. C. and J. M. Sequeira(2007), "Prior family Business Exposure as Intergenerational Influ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60, No.10, pp. 1090-1098.
- Chigunta, F. J.(2002), *Youth entrepreneurship: Meeting the key policy challenges*,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 Curtain, R.(2000), *Towards A Youth Employment Strategy*,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on Youth Employment.
- Davidsson, P.(1995),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RENT IX Workshop, Piacenza, Italy.
- Dick, T. P. and S. F. Rallis(1991), "Factors and Influences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Choices,"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pp. 281-292.
- Douglas, E. J. and D. A. Shepherd(2002), "Self-Employment as A Career Choice: Attitude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Utility Maximiz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26, No.3, pp. 81-90.
- Dunn, T. and D. Holtz-Eakin(2000), "Financial Capital, Human Capital, and the Transition to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Intergenerational Link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Fairlie, R. W. and A. Robb(2007), "Families, Human Capital, and Small Business: Evidence from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Owners Survey,"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pp. 225-245.
- Fayolle, A., B. Gailly, and N. Lassas-Clerc (2006), "Assess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mes: A New Methodology,"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Vol.30, No.9, pp. 701-720.
- Giannetti, M. and A. Simonov(2009), "Social Interactions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trategy*, Vol.18, No.3, pp. 665-709.
- Gibson, D. E.(2003), "Develop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Role Model Constraints in Early, Middle, and Late Career Stages," *Organization Science*, Vol.14, No.5, pp. 591-610.
- Greenberger, D. B. and D. L. Sexton(1988), "An Interactive Model of New Venture Initi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26, No.3, pp. 1-7.
- Hair Jr, J. F., W. C. Black, B. J. Babin, and R. E. Anderson(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Pearson Prentice Hall, Upper

- Saddle River, NJ.
- Henry, C., F. Hill, and C. Leitch(2005),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Can Entrepreneurship Be Taught? Part I," *Education+Training*, Vol.47, No.2, pp. 98-111.
- Jones, G. R.(1986), "Socialization Tactics, Self-Efficacy, and Newcomers' Adjustments to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29, No.2, pp. 262-279.
- Kennedy, J., J. Drennan, P. Renfrow, and B. Watson(2003), "The Influence of Role Models on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Queensland Review*, Vol.10, No.1, p. 37.
- Kolvreid, L.(1996), "Organizational Employment Versus Self Employment: Reasons for Career Choice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20, No.3, pp. 23-31.
- Krueger, N. F.(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8, No.1, pp. 5-21.
- Krueger, N. F. and D. V. Brazeal(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8, pp. 91-91.
- Krueger, N. F., M. D. Reilly, and A. L. Carsrud(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5, No.5, pp. 411-432.
- Liñán, F. and Y. W. Chen(2009), "Development and Cross 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3, No.3, pp. 593-617.
- Mead, G. H. and H. Mind(1934), *Self and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 Morris, M. H. and P. S. Lewis(1995),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29, No.7, pp. 31-48.
- Naffziger, D. W., J. S. Hornsby, and D. F. Kuratko(1994), "A Proposed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8, p. 29.
- OECD(2001), "Putting the Young in Business: Policy Challenges for Youth Entrepreneurship," *The LEED Programme, Territorial Development Division*, Paris.
- Parker, S. C.(2009), *The Economics of Entrepreneurship*,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ng Jr, R. A.(2004), "On Assuring Valid Measures for Theoretical Models Using Survey Data,"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57, No.2, pp. 125-141.
- Scherer, R. F., J. S. Adams, S. Carley, and F. A. Wiebe(1989), "Role Model Performance Effects on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areer Prefer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3, No.3, pp. 53-71.
- Sequeira, J., S. L. Mueller, and J. E. Mcgee (2007), "The Influence of Social Ties and Self-efficacy in Forming Entrepreneurial

- Intentions and Motivating Nascent Behavior,”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Vol.12, No.3, pp. 275-293.
- Shapero, A.(1975), “The Displaced, Uncomfortable Entrepreneur,” *Psychology Today*, Vol.9, No.6, pp. 83-88.
- Shapero, A. and L. Soko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pp. 72-90.
- Shepherd, D. A. and N. F. Krueger(2002), “An Intentions Based Model of Entrepreneurial Teams’ Social Cogni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27, No.2, pp. 167-185.
- Van Auken, H., F. L. Fry, and P. Stephens (2006), “The Influence of Role Model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Vol.11, No.2, pp. 157-167.
- White, S. and P. Kenyon(2000), *Enterprise-Based Youth Employment Policies, Strategies and Programmes*, Drat Report to ILO, Geneva.
- Zhao, H., S. E. Seibert, and G. E. Hills(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90, No.6. pp. 1265-1272.